

내러티브

나래티브

- ‘시간’의 이야기
-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묘사
- 일반적인 이야기는 모두 나래티브

나래티브의 종류

1. 중간에서부터 시작하기
2. 모래시계
3. 순차적 시간 흐름(Linear time)
4. 시간과의 경쟁
5. 압축 & 확장
6. 하루의 일과
7. 순환

8. 참여 취재

9. How it came to be

10. 회상

11. ‘그날 이후’

중간에서 시작하기

- 사건의 중간부터 기술, 묘사
- 그 다음은 현재 또는 과거로
- 사건, 사고에 많이 쓰임

모래시계

- 나래티브와 역삼각형의 혼합형
- 역삼각형 리드 → 이야기의 줄거리 바꾼 후 → 완전한 나래티브로 복귀

순차적 시간 흐름

- ‘시간’이 지배

- 상용 어구

첫 몇 개월간은, 점차, 하나씩 하나씩, ...
후, 다음날 아침...

- 시작할 때마다 시간적인 행동

시간과의 경쟁

- 인간이 특정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묘사
- 제한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특정한 행동 완료
- 시간과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
- 과거와 현재 사이의 상황비교
- 플래시 백 (flash back)

- 인기있는 나래티브 기법
- A와 B, C와 D 시간사이의 E,F,G,H 사람들

압축과 확장

- 의미와 메시지의 정서적 호소를 위해, 시간에 대한 통제, 변화 가능
- 주마등 같은 과거의 일들
- 영겁의 세월

순환

- 직선적 삶이 아닌 순환적 시간
- 매일 매일의 일상적 삶
- 계절

하루의 일과

- 한 인물의 하루에 대한 밀착 취재
- 병원 인턴의 하루 (간호사들의 하루)
- 경찰, 소방관, 구급차 구조대
- 역동적인 하루 일과를 보내는 사람들

참여 취재

- 취재 대상의 삶을 살고 그 이야기를 쓰는 것
-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 → 그대로 실천
- 참여 언론, 참여 관찰 → 탐사 보도적 이긴 하나 훨씬 부드러움

How it came to be

- 어느 특정한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
- 9:00 → 10:00 → 10:35

회상

- 전장을 바라보는 영웅
- 과거의 영광, 굴욕, 패배 등을 회상하며 애도

‘그날 이후’

- 존 허쉬의 ‘히로시마’
- 정서적, 물질적 재난 뒤에 자주 쓰임
- 홍수, 폭발, 충돌, 화재 등